

경북에 적합한 고령친화사업 육성방안 모색

- 정만태 선임연구위원(지역발전연구센터)

1. 출장자

- 지역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만태

2. 출장지 : 일본(동경)

3. 출장기간 : 2012. 9. 26 ~ 9. 28(2박 3일)

□ 출장일정

일자	주요 업무
9.26(수)	서울 출발 → 동경 도착
9.27(목)	국제복지기기전(H.C.R. 2012) 참관, 중부지역복지기기관련산업 클러스터 관계자 간담회
9.28(금)	국제복지기기전(H.C.R. 2012) 참관, (재)보건복지공보협회 관계자 간담회, 관련 자료수집 동경 출발 → 서울 도착

4. 출장목적

- “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관 관련하여 일본 국제복지기

기전 참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경북지역 적합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5. 출장 수행 주요 내용

(1) 제39회 국제복지기기전(H.C.R. 2012) 참관

< 제39회 국제복지기기전(H.C.R. 2012)>

- Home Care and Rehabilitation Exhibition -

○ 박람회 개요

- 핸드메이드의 자조도구로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복지 차량까지 세계의 복지기기를 모은 국제전시회임.

- 보건의료·복지·개호의 각 분야의 제도 개혁이나 사업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 심포지엄, 세미나 정보 등 국제 복지기기전

○ 개최일시

- 2012년9월26일(수)~9월28일(금) 10:00~17:00

○ 개최장소

- 도쿄 빅사이트동 전시 홀(아리아케)

○ 참가국

- 15개국

○ 참가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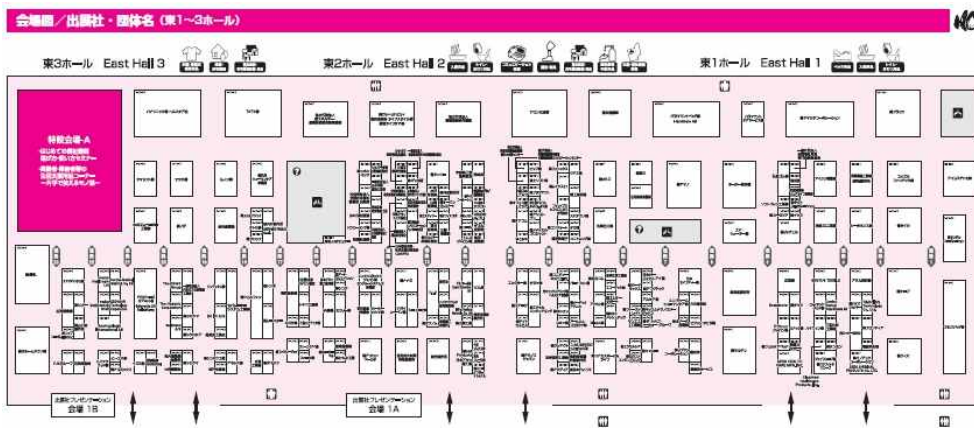
- 548회사(일본국내 490개사, 해외58개사), 약 20,000점의 세계 복지기기

○ 방문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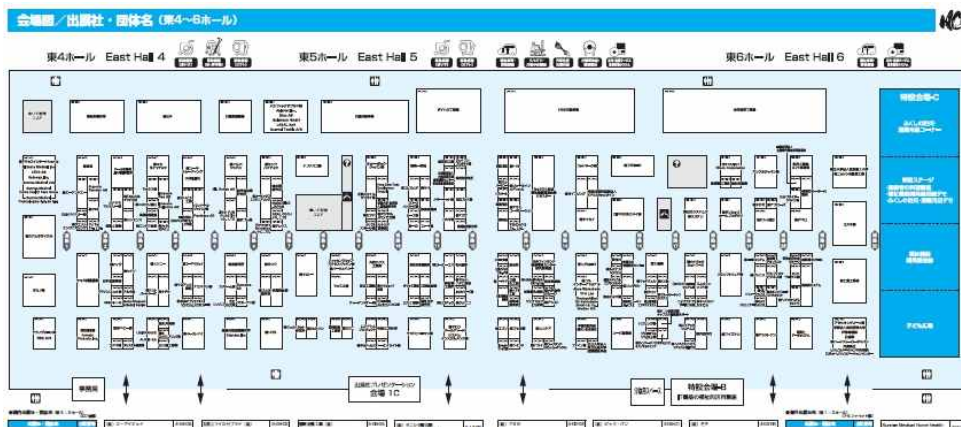
	방문객수	누계 방문객수
9월 26일(수)	36,217인	
9월 27일(목)	39,522인	75,739인
9월 28일(금)	32,766인	108,505인

○ 박람회장 구성

- 박람회는 6개 분야로 구성함.
- 동쪽 1~3 홀 전시내용



- 전시품목은 복지주택, 의복, 입욕용품, 출판 복지기기정보, 화장실 및 배설 관련 용품, 용품, 의족, 커뮤니케이션기기, 주택, 감염예방용품, 침구류 등
- 동쪽 4~6 홀 전시내용



- 전시품목은 복지차량, 재활간호예방용품, 자동기기(휠체어, 보조기구, 리프트), 재택시설서비스경영정보시스템, 일상생활용품, 간호등식품, 조리용기 등

(2) 중부지역복지기기관련 클러스터 관계자 간담회

- 일자 : 9월 27일(목)
- 면담자: Hidehisa Oku, Naoyuki Yokota, 尾崎 由紀(오자키 유키)

□ 주요 면담 내용

< 중부지역 복지기기관련 클러스터(岡山縣(오카야마현), 廣島縣(히로시마현), 山口(야마구치현))에 관련 >

- 본 클러스터의 경우 처음에는 장애우관련 산업에 대해서 시작 후 계속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하여 고령친화 산업을 포함하여 복지기기 클러스터로 확장함.
- 산,학,관,민의 연결 역할을 함.

<하트폴 비즈니스 오카야마에 대한 설명>

- 고령화나 사람들의 가치관의 다양화 등 사회환경의 큰 변동 중(안)에서, 전국 평균을 웃도는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오카야마현에 있어서는,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이 자랑과 사는 보람을 가져, 마음 풍부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, 그러한 향토 만들기에, 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임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
- 특히, 고령자나 장애자의 분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,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 용구의 개발과 제공은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, 이러한 인식 아래, 오카야마현에서는, 헤세이 10년 4월, 복지 기기에 관한 연구, 정보교환이나 인적 교류 및 산학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, 본현에 있어서의 복지 기기 관련 기술의 향상 및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카야마현 복지 기기 연구회가 설립됨.

- 헤세이 15년 10월에는, 산학관민이 협동하는 것으로써 이용자 요구를 적확하게 반영한 복지 용구의 개발·개량·상품화를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, 현내 복지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트풀 비즈니스 오카야마가 설립됨
- 지금까지, 오카야마현 복지 기기 연구회에 대해서는, 연구 활동을 통해서 복지 기기 개발에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산학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하트풀 비즈니스 오카야마에 있어서는, 「백성」의 참가를 얻은, 복지 용구 개발 지원 사업에 의해,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 용구가 많이 태어나는 등 서서히 성과가 나옴.
-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해 이번에, 지금까지의 오카야마현 복지 기기 연구회 및 하트풀 비즈니스 오카야마의 훌륭한 활동을 계승하면서, 양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소해, 「출산」 「학」 「관」 「백성」이 목표를 공유하면서, 한층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 협동하는 것임.
- 본 현이 가지는 의료·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포텐셜을 최대한으로 살려, 현내 복지 관련 산업의 한층 더 진흥을 통해 오카야마현만이 가능한 복지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, 이용자가 실로 필요로 하고 있는 복지 용구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, 여기에 새롭게 「하트풀 비즈니스 오카야마」를 설립함.

(3) 보건복지공보협회 간담회

- 일자 : 9월 28일(금)
- 면담자: Yasuhiro Kojima

□ 주요 면담 내용

< 제39회 국제복지기기전(H.C.R. 2012)에 대해서 >

- 보건복지공보협회에서 국제복지기기전을 준비함.
- 보건복지공보협회에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4명을 중심으로 국제복지기기전을 준비하였으며 나머지는 이벤트회사가 참여하여 지원함.

- 대기기업의 참여 및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함.
- 39년간 지속된 국제복지기기전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복지기기 박람회 임.

	Title	Period	Venue	Organizers	Total Visitors	Total Exhibitor Companies
1st	Exhibition of Modernized Health Care Equipment in Social Welfare Facilities	Nov.16-18,1972	Tokyo Metropolitan Industrial Hall (Ohtemachi)	Japan 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, Health and Welfare Ministry	9,641	64
2nd	Social Welfare Equipment Exhibition	Nov.27-30,1975	Tokyo Metropolitan Industrial Hall (Ohtemachi)	Japan 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, Health and Welfare Ministry	6,650	84
13th	International Health and Welfare Exhibition	Aug.28-31,1986	Tokyo Harum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, West Hall	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Association (HWIA)	22,276	161 (Overseas 65) (Domestic 94)
19th	International Health and Welfare Exhibition	Nov.10-12,1992	Tokyo Harum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, B Hall/Outdoor Tent	HWIA, Japan 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	41,133	201 (Overseas 65) (Domestic 136)
30th	Int. Home Care & Rehabilitation Exhibition (H,C,R)	Oct.15-17,2003	Tokyo Big Sight (Toky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) East 1-6 Halls	HWIA, Japan 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	138,010	629 (Overseas 61) (Domestic 568)

6. 정책시사점

□ 컨트롤타워역 네트워크 허브의 존재와 역량

- 전국사회복지협의회, (재)보건복지공보협회,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등 고령친화산업 타워역 네트워크 허브 존재
-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
- 소수정예 전담인력과 특별전시회는 이벤트회사 위탁운영
 - ※ 2012년 “제39회 국제복지기기전”을 주관한 (재)보건복지공보협회의 전담인력은 4명뿐이며, 금번 같은 국제행사의 경우 추가적 인력수요는 이벤트회사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놀라움.

□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

- (재)보건복지공보협회의 등 네트워크 허브의 협조요청에 47 도도부현에서 정보발신자 역할 담당 : 지자체가 관할지역 기업 및 복지학교 등에 고령친화산업 정보공유 등에 협력적

- 39년 전부터 각종 워크샵, 세미나, 전시회 참관 등 보조
 - ※ 2012년은 “제39회 국제복지기기전” 개최

□ 장애자용 수요에서 시작 고령화시대와 조우

- 시작은 장애자용 관련 제품으로 기반을 다짐
- 1980년대 말에 고령친화 사업 시작
 - ※ 일본은 '70년 고령화사회, '94년 고령사회, '06년 초고령사회 진입
- 1986년 재활협회 및 2000년의 개호법 시작
- 금년부터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회사 고령친화형 자동차 전시
- 장애자용 수요에서 시작하여 고령화사회 조우로 수요의 폭증

□ 고령친화 수요에 기반 한 민간중심의 활성화

- 현재 매년 전시회 시 530-540개사(10%는 해외 업체) 참여
-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
- 자동차업체 고령자용 전시로 참석 활성화

□ 커뮤니티차원의 지원시설 모색

- 고령친화산업 지원에 지방자치단체는 신중
- 워크샵, 세미나 지원 중심으로

○ 시설의 경우 지역 고령자 전체 차원에서 접근

□ 의료기기와 식품, 용품의 높은 수요도

○ 일본의 경우 의료기기가 첫 번째 시장수요

○ 식품은 증가하는 경향

○ 시설보다 재택치료 선호

○ 개호식에 대기업 참여

□ 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

○ 보험제도를 통한 고령친화용품의 이용요금 다운 → 관련 산업의 시장형성 → 기업 수익증대 → 정부 세수증대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

※ 중증 인증 받으면 휠체어 이용료 월 500엔, 불인정자는 월 5000엔, 처음엔 보험가입에 대한 저항도 있었음.

○ 보험 범위의 순차적 확대 : 2012년도 화장실 용품 및 주택용품 추가

□ 한국의 빠른 고령화사회 속도를 감안한 종합적 대응 필요

○ 이상의 일본의 사례를 통한 정책시사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이 요구됨.

○ 고령친화산업 거점기관 구축과 역량강화,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, 장애인용 수요와 고령화시대 수요 연계, 고령친화 수요 기반 민간기업의 적극적 활용, 커뮤니티차원의 접근,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수요예측과 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 요구됨.

